

우리는 이러한 災殃을 되

이번에는 美國에서 4백여명의 死傷者를 낸 大火가 發生했다. 결코 우리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방관, 또는 흘려버려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大火를 겪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災殃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위해 우리는 이러한 災殃에 對應하는 術기를 찾아야 할것이다.

여기 美國의 慘禍 現場의 外信을 綜습해 본다.

<編輯者·註>

미국 「켄터키」주의 「사우드케이 트」시에서 고객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층짜리 유흥장인 「비벌리힐즈」 나이트클럽에서 28일밤 9시(한국시간 29일 오전 11시) 화재가 발생, 유흥객 및 종업원 약 4백여명이 질식, 추락하거나 불 타죽고 1백30여명이 부상하는 대참사를 빚었다.

4시간만에 3층건물을 전소하고, 불길에 잡혔을 때 사후동안의 현충일 주말에다가 T·V의 「군나잇·쇼」에 출연하는 인기가수 「존 데이비드슨」의 출연이 예고되어 나이트클럽은 초만원에 이르렀는데 불이나자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한꺼번에 출구로 몰려 혼란을 빚었고 때마침 지하실에서 발생한 불길의 삼시간에 윗층 통로와 복도를 통한 연기와 화염에 싸이게 하므로써 그 희생자를 더욱 많이 발생케 하였다. 지하실에서 일어난 불은 종업원이나 고객의 눈에 띄지않은 가운데 1층식당에 옮겨 붙었으며, 식당에서 저녁을 마치고 대부분의 손님이 쇼가 시작되는 2층으로 몰려가고

있던 시간과 때를 같이하여 삼시간에 출구와 통로를 매연으로 가득차게 해서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질식하거나 불에 타죽고, 그밖의 많은 희생자들이 아비규환 속에서 창밖으로 탈출을 기도, 추락사하였다.

이날 화재신고에 접한 소방차들은 즉각 출동했으나 문체의 벽돌건물이 17「에이커」의 고립된 절벽위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유일한 통로인 4백m의 2차선 도로엔 고객들이 타고온 차들로 교통혼잡을 이뤄 현장 접근이 늦어졌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건물이 삼시간에 불길과 연기로 휩싸이는 바람에 늦게 도착하였는데 소방관들은 진화작업보다 인명구조에 손쓰기가 바빠 건물은 4시간만에 완전 전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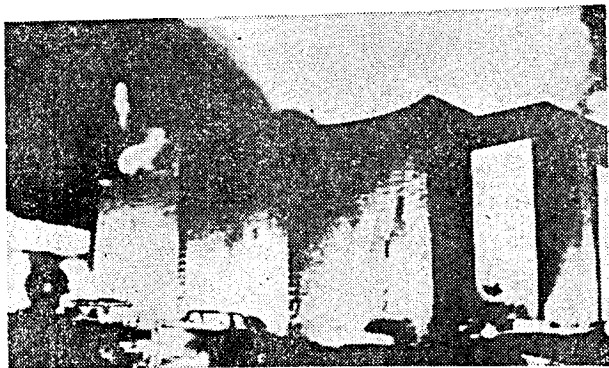
피해액은 약 2백만「달러」로 추산되었으나 화재원인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캠프벨」郡 警시관은 공포와 혼란이 사상자들의 수를 많게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건물의 출구라고 생각하는 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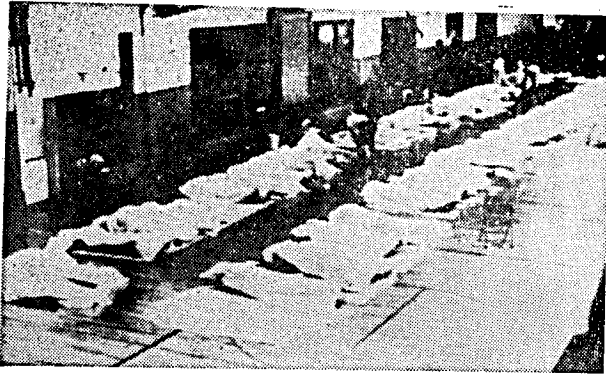
무더기로 뒤엉켜 있었고 추락사가 그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한 「비벌리 힐즈」 나이트클럽은 1960년대초 「켄터키」주 북부지역의 가장 유명한 카지노 도박장이었으나, 도박장 개설 금지 조치로 76년대초 「나이트클럽」으로 개조, 다시 문을 열고 영업중이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가 컸던것은 「대부분의 손님들이 불이 났다는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클럽의 종업원 「윌터·베일리」君(18)이 말했는데 「베일리」君은 토요일 저녁을 즐기려는 손님들로 가득차서 왠지떨었던 이 유흥장에 화재가 휩쓸고 간지 수시간 후 모든것이 잿더미로 변한것을 쳐다보면서, 「화재정보를 믿지않고 채빨리 도망가지못한 손님들은 아마도 「클럽」안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그날 한 여객으로부터 「지브라·룸」에서 불이났다는 말을 듣고 6백명의 관중들 앞에서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카바레」의 무



풀이 해서는 안된다



대위로 뛰어가 관중들을 웃기기 위해 한창 열을 올리고있는 「코미디언」들로부터 다짜고짜 「마이크」를 빼앗아 손님들에게 불이 났으니 조용히 비상구로 빠져나가 달라고 부탁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관중들은 이것도 「코미디」의 일부인줄 안랐는지 내말을 믿지않으려 들더군요.』라고 「베일리」군은 불이난 순간을 이같이 말해준다.

「베일리」군이 화재경고를 한 후 손님 일부와 비상구를 빠져 나오자마자 곧이어 연기가 카바레 홀 안을 짙게 메워 버렸다. 「베일리」군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채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관중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홀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손님들은 거의 마루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질은 연기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손님들의 옷자락이나 손을 탁론하고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대로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다고 한다. 『우리가 구한 손님만도 아마 20~30명은 될겁니다.』고 「베일리」군은 슬회한다.

◎ 「카바레」에서 「밴드」를 지휘하

고 있던 「빌레인」은 이 불로 적어도 5명의 단원이 숨졌다고 비통해했다.

정확한 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많은 생존자들은 전기 고장이 화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불이난 직후 「클럽」안이 갑자기 어두워졌었다고 말했고 한 순경도 그가 클럽에 도착했을 때는 출입문의 등을 비롯, 모든 옥내의 전등이 꺼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클럽」의 「메니저」는 불길이 걸림이 있는 발전기에서 맨처음 번졌다고 말했다.

8개 소방회사의 소방원 약 1백50명과 12그룹의 인명구조단의 진화 노력끝에 불길이 거의 잡혔을때, 이 「클럽」 건물밖의 잔디밭에는 야회복을 입은 50~60명의 남녀 시체들이 시커멓게 탄채 쌓여있었다. 『나는 「베트남」의 논에서 시체 무더기를 본적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시체는 처음 본다.』고 한 소방대원은 말했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임시 시체 안치소에는 시체들이 1m50cm 높

이로 쌓여있었다.

한편 화재로 소란한 틈을 타서 도둑질도 한몫 보려고 날뛰는 바람에 경찰은 진압을 빼기도 했는데

「켄·폴」 「사이드·케이트」 시장은 경찰에 도둑들을 경계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면서 『도둑들은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뒤져가기도 했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3명의 질도범이 시체에 서 금품을 가져가려다 잡혔다고 그는 말했다.

<美國內의 大火災 日誌>

지난 28일 밤 미국 켄터키주 「사우드케이트」시 소재의 「비빌리 힐즈」 나이트클럽에서 대화재가 발생, 약 4백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건은 지난 1963년 12월 30일 시카고시 「이르쿠와」극장 대화재때의 601명과, 1942년 11월 28일 보스턴시 「코코넛·그로브」 나이트클럽 화재때의 491명에 이어 미국사상 3번째의 대규모 사상자를 기록했다.

그외에도 미국내의 대화재 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30년 4월 21일=오하이오주 켈럼부스 형무소 화재, 사망자 3백20명.

② 1876년 12월 5일=뉴욕시 브루클린극장 화재. 사망자 2백95명.

③ 1871년 10월 8일=시카고 대화재. 사망자 2백50명.

또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사망자를 낸 화재는 1845년 5월 중국 清朝에 廣東市の 한 극장에서 불이나 1천6백70명이 불에타 죽은 것으로 「기네스」 세계최고 기록서에 나타나 있다.